

원희룡 장관 ‘태풍 ‘난마돌’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총력’

- 태풍 피해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고도의 긴장 유지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제14호 태풍 ‘난마돌’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, 물류 등 기간시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에 지시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이번 태풍 ‘난마돌’은 이동경로 상 우리나라에 근접하여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,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도로·철도·공항 등 시설물의 사전 방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 18일 오후 6시 40분 세종 국가교통센터에서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3개 지방청,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‘태풍 난마돌 대처상황 점검회의’를 열어, 도로·철도·항공 등 분야별로 태풍의 영향력 대비 기간시설들의 대응 능력, 현장 비상대응 체계는 물론 사전 조치사항 등 대처계획을 점검하였다.
- 특히, 강풍에 따른 해상교량에 대한 교통통제, 철도 선로 등 주요 시설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관리, 항공기 운항 스케줄 및 우회항로 조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.
- 태풍피해 발생 시 대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논의하였다. 도로 폐쇄 시 대체 우회도로 지정, 열차 운행 변경 시 즉각적인 정보 제공, 연계수송 대책 수립 등 비상조치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.
- 이원재 제1차관은 “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태풍 소식으로 인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계실 것”이라며,

- “태풍 피해 최소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전원은 최고의 긴장을 유지한 채 총력 대응해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2022. 9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